

하늘에서 축구를...

# '전주 드론축구 선수단' 창단

탄소·드론·ICT 산업 등 전주시 5대 신성장동력산업 발전 기여할 것으로 기대

전주시를 드론축구 중추도시로 만들 '전주 드론축구 선수단'이 창단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드론축구'는 전주시가 최첨단 탄소 소재와 드론기술을 융·복합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향후 탄소산업과 드론산업, ICT(정보통신기술)산업 등 전주시 5대 신성장동력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11일 전주월드컵경기장 내 드론축구 상설체험장에서 드론축구 선수단(단장 김승수) 창단식을 개최하고, 지난달 선발전을 통해 선정된 드론축구 선수 2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창단식은 선수들에게 전주시를 대표한다는 자부심과 사기를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드론축구 선수단은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 드론축구의 진수를 전주시민들과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에 알리고 홍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해 전주를 드론축구의 중추도시로 만들어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드론축구 상설체험장 내에 선수단 전용공간을 제공하는 등 선수단 활동에 필요한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와 협력기관인 (사)캠테크종합기술원이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한 드론축구용 드론축구공을 탄소소재를 활용한 전용보호기구로 감싸 초고속으로 날아다니는 경기



“정부 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반대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익산시농민회가 지난 10일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 서로 부딪히더라도 잘 깨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탄소산업과 드론산업의 융합 결정체인 드론축구 경기의 진수를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알리고, 드론축구를 통한 관련산업의 저변을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전주 드론축구 선수단 단장을 맡은 김승수 전주시장은 “세계 최초로 전

주에서 개발된 드론축구를 활성화시키고,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전주를 중심으로 새로운 스포츠산업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면서 “드론축구 활성화로 전주가 드론 레저 스포츠 산업도시가 되면, 3D프린팅과 드론산업, 정보통신기술에 바탕을 둔 ICT산업과 사물인터넷(IoT) 산업 관련 중소기업이 살아나

고, 전주경제를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드론축구 저변 확대를 위해 전주월드컵경기장 내 드론축구 실내 상설체험장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 “전주동물원 후문에 주차장 설치, 교통흐름 분산해야”

전주시의회 이병하 의원, “평일 제외하면 일대가 주차장으로 변할 정도로 극심한 혼잡 겪고 있다” 주장

전주시의회 이병하 의원은 전주동물원 후문과 주차장 설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병하 의원(사진)(덕진·호성동)은 10일 제 3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동물원에는 현재 85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지만 평일을 제외하면 일대가 주차장으로 변할 정도로 극심한 혼잡을 겪고 있다”며 “호

성동 방면에 동물원 후문과 주차장을 설치해 교통흐름을 분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978년 6월 10일 개원한 전주동물원은 지방 동물원으로는 유일하게 호랑이, 사자, 기린 등 다수의 동물을 보유, 현재 희귀동물인 반달가슴곰, 얼룩말 등 총 106종에 670여 마리의 동물들이 있다.

특히 전주동물원은 시민의 소중한 도심 속의 푸른 쉼터로 자리 잡아 시민 휴식처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에 전주시도 전주동물원을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동물원’으로 재창조하는 사업을 추진, 콘크리트와 철

장을 없애고 풀과 나무, 꽃으로 만발한 동물원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2018년까지 총 사업비 400억원을 들여 관람객을 위한 휴식공간과 조망공간, 관찰데크 등을 조성하고, 생생하고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생태동물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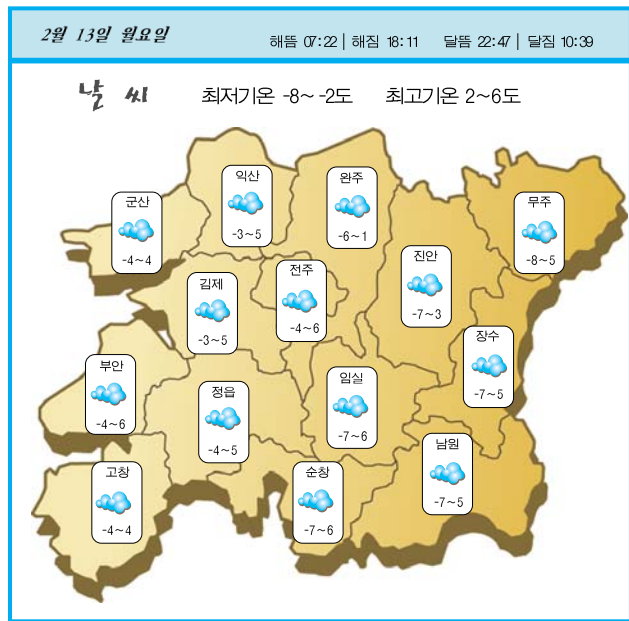
문제는 동물원이 전북도민의 큰 사랑을 받는 만큼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 주말이면 동물원을 찾는 차량이 몰려 인접 지역까지 교통 혼란이 도미노처럼 이어진다는 데 있다.

이병하 의원은 “동물원에 진입하는 차량과 인근 체련공원 이용자들의 차량까지 맞물려 동부대로 호성동 일대,

반대편으로는 하가지구까지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고 있다”며 “이미 수용한계를 초과한 동물원 주차장 공간으로는 넘치는 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동물원에서 호성동 방면에 후문과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동물원을 찾는 관람객과 도로이용자가 분리돼 주말이면 피폭이되는 교통정체는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며 “후문 설치로 동물원에 입장하기 긴 줄을 서야만 하는 관람객들의 빠른 입장도 가능해져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 익산교육지원청 승리골 진로교육 추진계획 설계·안내

진로상담가치관 캠프·학생동아리 대학 매칭 사업 등 추진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류지득)은 지난해 진로교육 성과나눔을 통해 익산진로교육의 성과와 평가를 분석하고 학교와 학부모, 지역의 의견을 최종 수렴하여 2017 승리골 진로교육 추진계획을 설계하여 현장에 안내했다.

자기주도적 진로탐색 능력 신장을 비전으로 하는 익산진로교육 계획은 지난해 12월부터 현장공감의 진로기획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며 익산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새하기를 힘차게 출발했다.

지난해 진로체험처 정보지도 '꿈두레'에는 108개의 우리고장 진로체험처의 알찬 정보가 수록되고 홀랜드 성격유형에 적용한 체험처 분류와 게임시 말판 활용 등 흥미롭게 제작되어 현장의 만족도가 높았다.

올해는 가치! 익산교육 혁신특구

첫해로서 진로교육 한마당도 풍성하게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며 더욱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진로상담가치관 캠프, 학생동아리 대학 매칭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익산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는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더욱 움직이는 진로센터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진로체험프로그램 실천과 더불어 체험처의 실시간 현황을 올리고 매칭하는 게시판 활용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류지득 교육장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등 교육현안과 연계하여 매년 협조체제를 공고히 해온 지역의 기관들을 비롯해 민간업체 등 기관 협의를 구성하여 교육도시 익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 전북도교육청 교원 명예퇴직 희망자 110명 전원 수용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이달 말 교원 명예퇴직 희망자 110명을 전원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규교사의 임용기회 확대 및 교직 사회의 원활한 순환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8월말 명예퇴직 희망자 49명을 모두 수용한데 이어 이번에도 전원 수용했다.

이달 말 명예퇴직 대상자는 공립유

치원 5명, 공립초등 18명, 공립중등 43명, 사립중등 44명으로 총 110명.

한편 도교육청은 이달 28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12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정혜은기자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두 번째 이야기

##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난은 학교를 더럽히지 않는다

이상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원천 기정의 '보리밭' 역할을 재검토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입니다.